

학교 환경 교육 강화로 생태 시민 양성 나선다

전담팀 구성 생태환경교육 박차
탄소 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 14개 과제 추진
유치원,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기후 변화 환경교육 실시

“생태환경교육에서 전남 교육의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해 기후변화환경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된 이래 올해 개정된 교육과정 총론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 교과에 생태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포함되는 등 생태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교육청이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보전과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교육청 내에 생태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생태환경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기후변화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으로 미래 인재과에 기후환경교육팀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생태환경 교육 실현에 나섰다.

도 교육청이 마련한 ‘기후변화 환경교육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환경교육 기반 구축 ▲기후변화 환경교육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 3대 추진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최근 전남도교육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 저탄소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업무협약 역시 이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식생활과 탄소중립 실천에 상호 협

력기로 했다.

특히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공동 추진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의 뜻이 담긴 ESG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 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오는 8월까지 ‘기후변화환경교육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환경변화 협의회를 구축·운영한다.

또 생태적 전환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공동체 포럼, 환경교육 컨설팅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단, 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 등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유치원은 놀이와 체험활동을 중점을 뒀으며, 각급 학교별로는 단계별 체험중심 생태환경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중학교는 자유학년제 연계,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생태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 사례 확산, 환경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지원, 1교 1생태학습장 운영, 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지구의 날(4월)과 환경의 날(6월), 자원순환의 날(9월), 세계 채식인의 날(11월) 등을 전남교육공동체 실천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실천단 운영, 탄소중립 기후행동 앱 운영, 학교 폐기물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생태환경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전담팀도 구성된 만큼 학생들이 환경을 배려하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양 세풍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텃밭을 가꾸고 있다.

기고

기후변화와 환경교육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원인 중 하나를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 사람과의 빈번한 접촉 등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보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더 위협할거라는 예고도 있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는 최근 100년간의 지구평균기온 상승의 원인은 인간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으로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람과 자연, 현재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위해서는 삶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 탄소절감과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학생 및 교육 주체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학교의 역할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태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환경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생태시민교육을 통해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배움이 되어 위기문제를 해결하며 자기 삶을 가꿔나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이러한 학습과 경험이 학생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공존을 실현하는 지구생태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교육청은 친환경생태학교

조 정 자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



(환경실천교육, 탄소중립중점교육, 학교숲생태놀이터조성) 운영으로 생활, 소비문화의 전환과 학교 녹색공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지역과 연계한 생태시민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남 전 학교에 기후변화 환경교육 운영비 지급, 프로그램 지원, 자료 보급,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컨설팅 등 학교 중심 자원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후 기후변화 환경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로부터 탄소중립을 선도해나가며,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마을생태교육과정 안착을 통해 생명의 활기와 따뜻한 마음, 실천하는 손들이 연결되는 공존을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남의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지역환경기관 및 단체, 지자체, 학부모 및 지역민이 함께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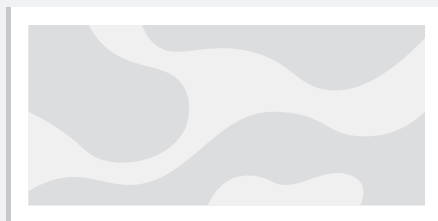


장석웅(오른쪽 세번째) 전남도교육감이 지난해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환경교육과 실천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순천인안초의 생태환경교육은 아이들이 생태적 감수성을 기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꾸려졌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손 모내기 현장.

전라남도교육청
지금! 나무터! 공감·실천·연대



빈방의 불을 꺼주세요
전남교육공동체 탄소중립 공동실천행동

하루 10분 소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광등 6개를 끄면 약 2500g이 절감됩니다.

30년생 소나무 403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비슷한 수준이래요.

우리 모두 ‘빈방 불 끄기’에 동참해요.